열왕기하 14. 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2)’ (왕하 14 장 1-29)

들어가기

본 장은 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사이에 발생한 전쟁과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로보암(2)’의 통치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왕 ‘아마샤’는 초기에는 나름 모세의 율법을 따르며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하였으나, 통치 후반기부터는 우상숭배와 함께 스스로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과 무리한 전쟁을 일으키며 유다를 위기로 빠뜨렸고, 이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반면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2)’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유다로부터는 ‘하맛’을, 아람으로부터는 ‘다메섹’을 빼앗으며, 북이스라엘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1.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서론적 평가 (1-4 절)

- 1) ‘아마샤’는 25 세에 유다의 제 9 대 왕이 되어 29 년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 아버지는 유다 제 8 대 왕인 ‘요아스’였고,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이었음.
- 2) ‘아마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 ①. 나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조상 ‘다윗’ 같지는 못했음!
 - 참고: 정직히 행하였다는 의미 => 올바른 일을 행했다는 것!
 - ②.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 행한 대로 행했음!
 - 이는 ‘다윗’만큼이 아닌, ‘요아스’ 왕이 한 것만큼만 했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
 - 참고: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나름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통치를 하며 성군의 자리로 나아갔으나, 통치 후반이 될수록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였음!
 - ③. ‘아마샤’ 왕은 아버지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여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방치함!

2. 유다 왕 ‘아마샤’의 통치 (5-14 절)

- 1)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반역자들에 대한 판결! (5-6 절)
 - 우선 유다 왕 ‘요아스’의 최후는 어떠했나요?
 -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7 살에 왕이 되어 40 년을 통치!
 - 초기에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으며 바알 신당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며 선정을 행함.
 -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 우상 숭배에 빠졌고, 아람이 유다를 위협하자 성전의 제물들을 바치며 화친을 청했고, 이후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실라’로 도망치다 그의 신복들인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벨’의 아들 ‘여호사바드’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됨.
 - 그런데 5 절을 주목해 보면, ‘아마샤’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설 때까지’는 아버지를 죽인 저들을 처벌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

- 아마도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저들의 힘이 강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을 것!
- 또한 당시 유다의 내,외부적 상황이 아람으로 인해 매우 혼란한 위기 상황이었음!!
-> 따라서 ‘아마샤’는 반역자를 처단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잠시 미루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적들의 힘이 약해질 때를 지혜롭게 기다렸다는 것!!

➤ 한 신학자의 코멘트

- ‘정의를 즉각적인 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서히 발휘되더라도 **완전하게 시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특별히 ‘아마샤’가 반역자들을 처벌할 때, 그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만 죽이고 자녀들과 가족들은 처벌하지 않았음!

- 출애굽기 21 장 12 절, 레위기 24 장 17 절 ->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

- 신명기 24 장 16 절,

-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

- 곧 초창기 ‘아마샤’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만을 앞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고자 노력했다는 것!

- >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일을 옳고 좋게 보셨음!

- >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정의를 외치며 앞장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

2) 유다를 반역한 ‘에돔’을 징벌 (7 절)

- 에돔은 ‘다윗’때부터 유다를 따르겠다고 선언했지만, ‘요람’ 왕 시대부터 유다를 배반했고, 유다의 적이 되어 가시처럼 행동했음. (왕하 8: 22)

- 그런데 ‘아마샤’는 유다의 국력을 회복하자마자 이 에돔부터 징벌하였음!

- ‘아마샤’가 이끈 유다 군대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사 만 명을 죽이고, 그대로

- 진격해 에돔의 수도 ‘셀라’(반석이란 이름)’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바꿈.

- ‘욕드엘’이란 뜻은 ‘여호와와는 멀하신다’란 의미!

- 그런데 이처럼 ‘아마샤’가 에돔을 징벌하며 유다를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잊지 말아야만 했음!!

3)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아마샤’ (8-14 절)

-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전쟁을 선언함!

- 8 절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는 표현은 ‘힘을 겨루어 보자’는 선전포고!

- 아마도 에돔을 정복하며 자신감을 얻은 ‘아마샤’는 지금이 북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적기라고 생각했던 듯!
- 그러나 이런 ‘아마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만/충동적인 마음이었음!!
- 참고로 ‘아마샤’ 시대까지의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
 -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후부터 ‘아사’ 왕 때까지 60 년간 서로를 견제하며 대립!
 - ‘여호사밧’ 시대부터 북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맺고 동맹관계를 유지!
 -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 (곧 ‘아합’과 그 후손들의 시대)가 ‘예후’에 의해 무너지고, ‘요아스’가 유다 왕이 되면서 동맹관계는 깨지고, 적대적 관계로 발전!!
- 그럼 당시 ‘아마샤’의 도전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9-11)
 - ①.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더니 교만해졌다며 그의 말 자체를 무시해 버림!
 - 이때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유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로 비유하며, 딸을 달라는 가시나무를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짓밟았다고 조롱함.
 - > 이는 곧 유다는 결코 북이스라엘과 상대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
 - ②. 화를 자초하여 유다를 망하게 하지 말고, 왕궁에서 에돔을 이긴 것에 만족하라고 일침!!
 - ③. 그러나 유다 왕 ‘아마샤’가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전쟁을 하려고 하자, 결국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 유다 진영 ‘벧세메스’에서 동족간 전쟁을 하게 됨.
- 그럼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12-14 절)
 - ①. 유다가 북이스라엘에 크게 패하고 군사들을 각자의 집으로 도망함!
 - ②. ‘요아스’ 왕은 ‘벧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샤’를 생포한 후 예루살렘까지 진격!
 - ③.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어버림!
 - > 참고: 400 규빗 = 약 180 m.
 - ④.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 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붙잡아 사마리아로 끌고 감.
- 참고로 역대하 저자가 설명한 유다의 패전 이유를 주목! (역대하 25 장 14 절 이후)
 - ①. 에돔을 정복하고 돌아오던 ‘아마샤’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신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며 분향하기 시작함!
 - ②. 이 일에 대해 한 선지자가 ‘아마샤’를 책망하자 그는 선지자를 위협하며 쫓아냄!
 - ③. 이 일로 하나님은 ‘아마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심! (역대하 25 장 16 절)
 - ④. 그 후 역대하 20 장 20 절을 주목!
 -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스스로 교만해진 ‘아마샤’의 죄악 때문에 유다는 패하게 된 것!

3.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샤’의 최후 (15-22 절)

- 1)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고, ‘요아스’가 죽자 아들 ‘여로보암(2)’이 북이스라엘의 제 13대 왕이 되었습니다. (15-16 절)
- 2) 유다 왕 ‘아마샤’는 자신을 정복한 ‘요아스’ 왕보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17-22 절)
 -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 ‘라기스’로 도망가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됨.
 - 다행히 그의 시신은 다윗 성으로 옮겨져 장사한 후 조상들과 함께하게 됨.
 - 유다 온 백성들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웃시아)를 유다 제 10대 왕으로 세움!
 - 이후 ‘아사랴’는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키며, 나람 성군으로 등극함.
 - > ‘엘랏’ = ‘종려나무 숲’이란 뜻으로 유다 최 남단의 항구 (당시는 에돔에 속했던 땅)
 - 참고: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요아스’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
 -
 - 한 신학자의 코멘트
 - ‘성도는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옳게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추구해야만 할 것이다!’

4.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2)’의 통치 (23-29 절)

- 1) 북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2)’은 ‘요아스’의 뒤를 이어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 그럼 ‘여로보암(2)’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음!’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가드헤벨 출신의 ‘아밧대’의 아들 ‘요나’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되도록 은총을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2)’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로 발전함!
 - 참고로 가드헤벨 출신의 ‘아밧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는 이방 땅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최초의 선교사!
- 3) 그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로보암’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 26-27 절을 주목하면!
 - 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고,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

②.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천하에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 있을까?
 -
 -

4) ‘여로보암’ 왕이 죽자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었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제 14 대 왕이 되었습니다.

5.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거나 결심한 내용들이 있다면?

6. 중보기도 나눔